

청소년추천도서의 허와 실

선정도서 독후 반응 등 사후관리 필요

‘권장도서’는 ‘필독서’...자율적 책임기 돼야

‘서지적 완성도보다 청소년 눈높이 기준’ 목소리도

작년 12월에 책따세(책으로 따뜻한 세상 만드는 교사들의 모임)에서 실시한 추천도서 목록 필요성을 묻은 결과, 총 1391표 중 87%(1204표)가 ‘아주 많이 필요하다’로 답해 추천도서목록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진행 중인 설문 중 ‘가장 절실히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질문에 ‘좋은 책들에 관한 알찬 정보(63%)’가 필요하다는 회원들의 의견이 모아졌다.

허병두 교사(송문고, 책따세 대표)는 “청소년들은 어떤 책을 읽어야 하는지 책 선택기준과 분별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청소년뿐만 아니라 지도하는 교사들은 여러 기관에서 발표하는 추천도서에 의지할 수밖에 상황”이라며 도서선정의 객관성이어과 신뢰성이 어느때보다 중요하다 설명했다.

청소년 추천도서, ‘제 역할’ 하고 있나?

청소년 추천도서를 선정하는 기관은 다양하다.(표지이야기 설문조사 참조) 이 중 출판계의 상징인 대한출판문화협회(이하 출협)와 문화관광부 산하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이하 간윤위)의 사례를 통해 청소년 추천도서의 의미와 문제점을 짚어보자.

1986년부터 출협은 출판문화진흥재단과 협업하여 ‘청소년도서 선정 보급사업’을 담당하고 있는데, 출협은 도서선정을, 진흥재단은 보급사업을 맡고 있다. 청소년도서 선정사업은 연간 4회 선정을 원칙으로 연간 120종을 선정한다. 최근 6개월 이내 국내에서 발행된 초판본 도서를 기준으로 삼아 출판사들이 출협에 해당 심사위원에게 해당도서를 제출하면, 심사위원회가 심사기준에 따라 1차로 도서를 선정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도서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도서선정

을 위한 심사위원들은 문학·예술인, 대학교수, 출판평론가, 현직교사(중학교 1명, 고등학교 1명) 등 총 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청소년 도서가 선정되면 진흥재단에서 종당 100~300부씩을 출판사로부터 구입해 직업전문학교, 청소년선도기관, 소년원 및 보호관찰소, 청소년야학, 우수독서학교 등 독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청소년 관련기관 약 300곳에 책을 배포한다.

문화관광부 산하 조직인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이하 간윤위)에서도 1990년부터 청소년 권장도서 사업을 추진, 분기별로 40종씩 선정하고 있다. 간윤위는 심사위원인 서평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출판정보에 밝은 전문가 10인 내외로 구성되어 있다. 간윤위는 현직 중고등학교 교사가 한 명도 위촉되어 있지 않다. 관계자는 “선정위원의 신뢰성을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출협과 간윤위는 추천도서의 대중화를 위해 홈페이지 공지, 언론사 자료 배포, 인증마크 부여, 포스터 제작, 목록집 발간 등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다.

‘책 내용이 어렵고 한쪽으로 치우친 느낌’

그러나 청소년 도서선정 이후 해당 도서들이 청소년들에게 적합한지 여부 등 구체적인 평가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진흥재단에서는 출협에서 선정된 도서를 배포한 기관에 1년에 상하반기, 한 번씩 진흥재단 관계자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설문내용은 ‘선정도서의 내용이 기관의 성격 및 이용자(청소년)들의 수준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등이 중심을 이룬다. 관계자는 “설문 결과 선정된 도서가 적합하다는 곳도 있지만, 책 내용이 너무 어렵고, 학술적인 내용 등 전문성이 높은 책들은 청소년들이

읽기에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많다”고 설명하면서, “도서 선정과정이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객관적 자세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간윤위에서는 지금까지 한 번도 추천도서에 대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간윤위 관계자는 “예산 부족으로 추천도서 평가는 엄두도 못 내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허병두 교사는 “청소년들의 정서와 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도서 리스트들이 많다는 점이 문제”라며 “추천도서 목록이 상업성에서 탈피해서 교육적으로 접근하고, 문화적 소통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충고한다.

‘추천도서목록, 상업주의·권위주의적’ 시각도

청소년들이나 독서지도 교사들이 제일 답답해하는 것은 ‘무엇을 읽어야 하는지, 무엇을 읽혀야 하는지’ 하는 것이다. 수많은 책 가운데 읽어야 할 책을 고르지 못하는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이다. 이러한 딜레마를 조금이나마 해소해주는 게 각 기관의 추천도서 리스트다. 그러나 현직교사와 청소년들은 추천도서에 대한 다소 비판적이다. 고교 국어담당인 송승훈 교사는 “학생 권장도서가 어떠해야 하는지 인식의 개선이 필요할 때”라고 지적한다. 송 교사 말에 의하면, 그 분야에서 인정받다고 해서 청소년 권장도서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어떤 책이 그 분야 전공자들 사이에서는 좋은 책이어도 학생이 그 책을 온전히 읽어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허병두 교사는 “추천도서목록이 상업주의와 권위주의적”이라며 비판적인 시각을 내비치기도 했다. “논술제도로 인해 독서는 시험으로 연결되며, 출판은 그야말로 산업으로 변질됐다. 전국적으로 학교 도서관이 약 1만 개가 되는데 출판사들은 이를 마케팅의 대상으로 생각할 뿐”이라고 상업만능 풍조를 지적했다. 청소년들과 가장 가까이에서 호흡하는 사람들은 현장 교사들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추천도서 목록은 상호협력적인 산물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권장도서, ‘필독서’ 아닌 독서 도우미 역할해야

이수정 교사(양일중 국어)는 “권장 도서목록 자체가 문제라기보단 ‘제시 방법’이 문제”라고 보았다. 즉 목록이 강압적으로 제시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 특히 학교의 권

장도서 목록은 권장이나 추천이라는 이름으로 목록을 제시하지만, 실제로는 ‘필독서’나 다름없다.

이 교사는 “청소년 권장도서 목록은 책읽기의 안내자나 도우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간윤위나 출협의 목록에 대해선 “전문가 집단의 목록 선정은 독자보다는 책 자체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다”는 의견을 보였다. 작품 자체의 완결성이나 작품성도 중요하지만 그 속에 담긴 주제나 의미가 학생들의 삶과 깊은 연관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즉, 학생들의 고민과 삶을 담고 있어 학생들 스스로가 읽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한다는 얘기다. 추천도서는 강압적으로, 일괄적으로 제시될 게 아니라, 학생 개개인의 성장 단계별·수준별로 선정이 이뤄줘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

취재_정윤희 기자

교사가 본 ‘추천도서’

글 이수정 교사(양평양일중학교 국어)

책에 대한 전문가 집단은 작품 자체의 완결성, 문학성에 치중하다 보니 독자, 곧 청소년 독자를 위한 책이라는 것을 간과하기도 한다. 그러다 보니 ‘청소년에게 읽혀야 할 책’이라는 명목으로 목록을 만들기도 한다. 그래서 고전위주의 목록이 되기도 하고, 청소년들이 소화하기에는 어려운 내용의 책들로 이루어진 목록이 선정된다. 권장도서목록을 제시하는 것은 이를 통해 좋은 책을 널리 알리고, 책과 친해지도록 하기 위해 만든 것인데 오히려 이러한 목록으로 책에서 더욱 멀어지게 되는 게 문제이다. 그런 면에서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청소년들의 고민과 삶을 담고 있는 현재의 책들을 찾아내는 해안이 필요하다. 작품으로서 완결성이 지나치게 떨어지지만 않는다면 고전보다는 이런 책들이 청소년 목록으로는 훨씬 더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청소년들에게 읽혀야 할 책’만이 아니라 ‘청소년이 읽고 싶은 책’도 함께 골라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목록의 제시에 있어서도 강압적으로 일괄적으로 모두가 이 책을 읽어야 한다는 것은 또 하나의 폭력이라고 생각한다.

학교 권장도서목록은 그런 경우가 많다고 생각한다. 10권의 책을 목록으로 제시하고 이것을 반드시 읽고 독후감을 써야 한다고 하는 경우가 많다. 같은 학년이라도 아이들의 독서능력은 천차만별인데 그러한 독서능력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 ‘책읽기가 익숙하지 않은 학생을 위한 목록’, ‘어느 정도 책 읽기에 흥미를 붙인 학생을 위한 목록’, ‘책읽기에 힘이 생긴 학생을 위한 목록’ 등으로 학년을 떠나 개인의 독서 수준별 목록이 필요하다. 그리고 하나의 목록이 아니라, 주제별로 다양한 목록을 만들어 제시하는 것도 필요하다. 학기 초에 권장도서 목록을 제시하고 매월 또는 분기별로 주제별 목록을 제시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청소년에게 필요한 성장도서 목록, 환경을 생각하게 하는 목록, 물질적 가난을 생각하게 하는 목록’ 등으로 주제별 목록을 만들어 제시하면 좋다. 목록이 하나뿐일 때는 강압적으로 느껴지지만 여러 개일 때는 알림의 역할이 더 강하다. 권장도서목록은 이런 역할을 해야 할 것으로 본다. ❖